



이정훈

“힘 빼니, 힘 나요” KIA 4번타자 이정훈



최형우 빠진 자리에서 5월 한 달 24안타 타율 0.364 최원준·박찬호와 함께 성장 ... “마음 편하게 하겠다”

“행복해요”라는 말 이상으로 이정훈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 것 같다. KIA 타이거즈 이정훈은 5월의 스타였다. 최형우가 망막 이상으로 빠진 사이 이정훈이 팀의 4번 타자로 타석에 섰다. 1군 복귀 첫날 3안타를 치면서 안타행진을 시작한 그는 5월 한 달 24개의 안타를 터트리면서 0.364의 타율을 찍었다. 리그 전체 6위의 성적이다. 사사구 13개도 얻어내면서 0.468의 출루율로 전체 9위, 2개의 홈런과 함께 장타율 10위(0.515)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정훈은 “타석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웃었다.

포수라는 자리의 수비 부담을 덜고 지명타자 역할을 하면서 이정훈은 마침내 타격 재능을 보여줬다. 윌리엄스 감독은 최형우의 복귀에도 이정훈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1루 수비 연습도 주문했다. 5월 위기를 함께 버틴 동료들이 이정훈에게는 큰 힘이 됐다. 이정훈은 최원준의 ‘한마디’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정훈은 “원준이는 나와 타격에서 생각이 같다. 말이 잘 통한다. 나만의 존을 그려놓고 치는데 원준이가 ‘그게 없애졌다. 안 보인다’고 이야기해줬다. 거기서 생각을 바꿨다”며 “스윙은 프로에서도 아마추어 때와 같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타석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놓고 치느냐가 중요하다. 그 부분 해매면서 잊어버렸던 것 같다. 원준이의 한마디가 잊어버린 것을 찾는 계기가 됐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훈을 움직인 최원준, 이정훈은 박찬호를 깨웠다. 박찬호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있는 KIA의 또다른 주역이다. 재치있는 수비는 물론 타격에서도 중요한 순간 역할을 해주면서 KIA에 힘을 불어넣었다. 지난 5월 27일 키움전에서 결승타 주인공이 된 뒤 박찬호는 타격 상승세의 비결로 ‘힘 빼는 법’을 이야기했다. 박찬호는 “정훈이 형이 힘 빼는 걸 잘한다. 힘 빼는 방법을 알려줬다. 어드레스를 잡은 뒤 숨을 내쉬고 거기서 한 번 더 날숨을 쉬는데 다행히 나한테 맞았다”며 “힘으로 스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고정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몸 컨트롤도 된다”고 이정훈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정훈은 이에 대해 “찬호가 힘을 어떻게 빼느냐고 물었다. 찬호를 보면 칠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하던 방식을 알려줬다”며 “몸에 힘을 빼려고 해서 빼는 게 아니고 호흡을 해야 빠지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 뒤로 잘 치더라”고 웃었다.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 지도자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정훈은 “대학교 때 코치님께서 심호흡하는 법을 알려주셨다. 프로 와서도 적용했는데 초반에 헤맸을 때 최희섭 코치님이 힘 빼라고 하셨다. 그 순간 이걸 왜 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냐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왔다”며 “안 맞았으니까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원준이가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유지하면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코치님들 다들 편하게 이야기하니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것 같다”며 “스윙 나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다. 연습 진짜 많이 했다. 어릴 때 스윙 궤도 이런 거 가르침대로 꾸준히 했다. 스윙 같은 것을 제일 잘 볼 수 있고 잘 아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코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1군에 왔을 때 이정훈의 생각은 “형우 형을 때까지 버티자”였지만 욕심이 생겼다. 그리고 최형우가 복귀한 1일에도 이정훈은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했다. 이정훈은 “1군 투수도 2군에서 올라온 선수도 많고, 다들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2군에서도 쳐봤기 때문에 타이밍 잘 잡으면 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다른 목표 없이 잘 유지하면 좋겠다. 과분하고 행복하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PGA 투어 US여자오픈 ... 이정은 등 한국 선수 20명 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총상금 550만 달러)이 3일(현지시간) 막을 올린다. 3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올림픽 클럽 레이크 코스(파71·6457야드)에서 열리는 US여자오픈은 1946년 시작해 올해 76회째를 맞았다. 지난해 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6월에서 12월로 연기돼 개최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US여자오픈은 1998년 박세리(44)를 필두로 한국인 챔피언이 다수 탄생해 강한 면모를 보인 대회다. 2005년 김주연, 2008년과 2013년 박인비, 2009년 지은희,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 2015년 전인지, 2017년 박성현, 2019년 이정은,

지난해 김아람까지 10명의 한국 선수가 총 11차례 우승을 일궜다. 특히 이정은, 김아람의 연속 우승을 포함해 최근 4차례 대회 중 3차례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도 한국 선수가 정상에 오르면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다. 이번 대회엔 20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해 정상에 이름을 올리려 한다. 시즌 첫 승을 노리는 세계랭킹 1위 고진영에 US여자오픈 트로피만 두 번 들어 올린 세계랭킹 2위 박인비, 세계랭킹 3위 김세영까지 ‘톱3’가 모두 출격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뛰다 지난해 이 대회 ‘깜짝 우승’으로 올해 LPGA 투어에 뛰어난 김아람은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김아람은 이번 시즌 5개 대회에 출전, 두 차례

컷을 통과해 4월 롯데 챔피언십 공동 10위가 최고 성적이다. 역대 우승자인 유소연, 이정은, 박성현, 지은희, 최나연, 전인지도 또 하나의 US여자오픈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 김효주, 이미림, 박희영, 허미정, 김인경, 이미향, 신지은, 양희영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 중엔 이다연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아마추어 박보현은 예선을 거쳐 출전권을 따냈다. 고진영은 대니엘 강(미국), 해나 그린(호주)과 1·2라운드를 함께 치르고, 박인비는 리디아 이고, 평산산(중국)과 같은 조에 편성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연합뉴스

동성고 특급 내야수 김도영이나 진흥고 강속구 투수 문동주나

황금사자기, KBO 1차지명 경쟁

특급 내야수 김도영이나 강속구파 문동주나, 눈길 끄는 1차지명 경쟁이 펼쳐진다. 제7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1일 시작됐다. 주말리그 왕중왕전을 겸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14일까지 서울 목동야구장과 신원야구장에서 진행된다. 우성베이스볼클럽과 야로베이스볼클럽 등 클럽팀을 포함해 84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고, 주말리그를 거쳐 48개팀이 우승을 위한 경쟁을 이어가게 된다. 광주·전라권에서는 광주동성고, 광주진흥고, 화순고, 정읍인상고가 출사표를 던졌다. 1일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른 인상고는 오는 4일 오전 9시 30분 물금고와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이어 진흥고가 2일 오전 9시 30분 장충고와 승리를 다툰다. 부전승으로 32강에 오른 화순고와 동성고는 각각 4일과 6일 오후 3시 30분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화순고는 휘문고와 정주고의 승자와 만나게 되고, 동성고는 강원고와 세광고 승자와 대결한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주목받는 팀은 동성고와 진흥고다. 동성고에는 빠른 발에 ‘한방’까지 겸비한 김도영이 버티고 있고, 진흥고에는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는 문동주가 있다. 지역은 물론 전국 랭킹 1·2등을 다투는 ‘대어’가



동성고 김도영 진흥고 문동주

동시에 전국대회에 출격하면서 야구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오는 8월 23일 KBO 1차 지명회의를 앞둔 KIA 타이거즈도 이번 대회를 기다렸다. 야수 최고 선수와 투수 최고 선수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KIA는 행복한 고민을 넘어 ‘머리 아픈 고민’을 하고 있다. 두 선수는 타 구단 스카우트들도 눈독을 들이는 ‘특급 유망주’다. 2차 지명회의는 전년도 순위 역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난해 6위 KIA는 5번째로 지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실상 두 선수를 동시에 품을 가능성은 없다.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 KIA는 큰 무대를 통해서 두 선수의 실력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진흥고는 시작부터 ‘빅매치’를 벌이게 됐다. 스피드와 제구까지 겸비한 ‘전국구 에이스’를 앞세운 진흥고는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하는 ‘우승 후보’ 장충고를 상대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출격

‘코리아 탱크’ 최경주(51·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930만 달러)에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갈 태세다.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3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72·7543야드)에서 열리는 대회다. 이 대회는 PGA 투어에서 한 시즌에 5개 열리는 인비테이셔널 대회 중 하나다.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메모리얼 토너먼트 외에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RBC 헤리티지, 찰스 슈와브 챌린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있다. 이 중에서도 메모리얼 토너먼트,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총상금 구

모가 930만달러로 큰 편이다. 잭 니클라우스가 주최하는 이 대회에서 최경주는 2007년 우승한 경력이 있다. 최경주는 지난해 PGA 챔피언스투어 메이저 대회인 시니어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PGA 정규 투어에서는 4월 발레로 텍사스오픈 공동 30위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이 없지만, 시니어 PGA 챔피언십에서 막판까지 선두권을 달리며 샷 감각을 끌어올렸다. 또 10일 제주도에서 개막하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SK텔레콤오픈 출전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번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기회가.



대니 리(뉴질랜드)도 나온다. 2018년 이 대회 우승자 브라이언 디샴보(미국), 지난해 우승자 온 램(스페인) 등이 출전하고 저스틴 토머스(미국),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등도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연합뉴스